

한국어 장소교체 구문에서의 대상논항의 통사적 특성과 통사구조*

임 창 국
(경남대학교)

Yim, Changuk. (2006). Locative alternation constructions in Korean and their syntactic structure. *Language Research* 42(1), 125-137.

This article examines locative alternation constructions in Korean, and argues that the alternation attributes to the fact that (intransitive) locative verbs have more than one argument structure (rather than the fact that it involves syntactic movement). That is, each variant of the constructions has its own distinct underlying structure. This follows from the fact that in two alternating variants, *-e* 'on/in' and *-lo* 'with' variants, the theme argument of a locative verb displays different syntactic behaviors with respect to relativization, the possibility of occupying focus position in a pseudo-clefting sentence, and modification by degree adverbs. Furthermore, on the basis of the observation that in the *-lo* variant the theme argument of a locative verb behaves like a predicate nominal, the article proposes that the variant involves a small clause, which is syntactically represented as PrP in the sense of Bowers 1993.

Key words: locative alternation, Case alternation, argument structure, small clause, PrP (predication phrase), predicate nominal

1. 서 론

한 문장의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들이 둘 이상의 격표지(Case-marking)를 '수의적으로' 허용하는 현상은 생성문법(generative grammar)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온 주제 중 하나이다. 아래 (1)은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 (1) 가. 맥주{가/를} 먹고 싶다.
나. 통사론{이/을} 배우기가 어렵다.

* 익명의 <어학연구> 논평자 세 분께 감사를 표한다. 본 연구는 2006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 장려금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이러한 현상들은 이른바 “격교체(Case alternation)”라 불리며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왔다. 가령, 주격과 목적격이 교체하는 소위 “주격 목적어 구문”인 (1)는 하나의 기저문장에서 출발하여, 통사적 이동변형(Move- α)에 의해 다른 하나가 도출된다. 편의상, 이런 분석을 통사적 이동변형(syntactic transformational) 접근이라 부르자.¹⁾

고광주(2003)는 격교체 현상에 대한 통사적 이동변형 접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한 문장 안에서 서술어가 요구하는 어떤 한 논항에 둘 이상의 격이 수의적으로 출현하는 것은 단지 표면적 교체일 뿐이며, 사실 이러한 격교체는 그 서술어가 복수의 어휘-통사 구조(lexical-syntactic structure), 즉 둘 이상의 논항구조(argument structure)를 가지는 데에 기인한다고 위 저자는 주장한다. 편의상, 이러한 입장을 어휘적(lexical) 접근이라 부르자.²⁾

“격교체” 현상에 대한 두 접근을 염두에 두고, 아래의 소위 장소교체(locative alternation) 구문을 보자.

(2) ‘에’ 구문

- 가. 해변에 미인들이 봄빈다.
- 나. 정원에 꽃이 가득하다.
- 다. 거리에 구경꾼들이 북적인다.
- 라. 단지에 벌들이 우글거린다.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해변, 정원, 거리, 단지’ 따위의 논항이 장소의 후치사 ‘에’와 함께 나타난다. 논의의 편의상, (2)와 같은 구문을 ‘에’ 구문이라 부르자. 흥미롭게도, 아래 예문 (3)에서는, 그러한 장소(location)논항에는 주격표지가, 대상(theme)논항에는 후치사 ‘로’가 뒤따른다. 논의의 편의상, (3)과 같은 구문을 ‘로’ 구문이라 부르자.

(3) ‘로’ 구문

- 가. 해변이 미인들로 봄빈다.
- 나. 정원이 꽃으로 가득하다.
- 다. 거리가 구경꾼들로 메어진다.
- 라. 단지가 벌들로 우글거린다.

요컨대 장소교체구문의 외형적 두 가지 교체는, 장소논항에 주격표지가, 대상논항에 ‘로’가 실현되는 ‘로’ 구문과, 대상논항이 주격표지를 갖고 장소논항이 장소

1) 한국어 주격 목적어 구문에 대한 통사적 이동변형 분석의 일례로 김선웅 1995를 참조.

2) 엄밀히 말하면, 논항구조는 어휘적 표상(representation)인 동시에 통사적 표상이다(Grimshaw 1990).

후치사 ‘에’와 함께 나타나는 ‘에’ 구문이다.

본고의 목표는 ‘에’ 구문과 ‘로’ 구문에서 관찰되는 표면적 격교체 현상을 어휘적 접근으로 설명하는 데에 있다. 더 구체적으로, ‘에’ 구문 (2가)와 ‘로’ 구문 (3가)는 동일한 단일 기저문장에서 이동변형에 의해 어느 한 문장이 다른 한 문장을 도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소교체 동사 ‘뵈나다’가 서로 상이한 두 개의 논항 구조, 즉 하위범주화 자질(subcategorization features)을 가지어 두 구문이 각각의 기저구조를 만들어 서로 다른 도출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본고의 어휘적 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구문의 대상논항의 통사적 특성 차이에 주목한다. ‘로’ 구문의 경우, 대상논항이 관계화되지 않는 반면, ‘에’ 구문에서는 대상논항의 관계화가 허용된다(2.1절). 대상논항 ‘로’구는 분열문의 초점자리에 올 수 없으나, ‘에’ 구문의 대상논항은 초점자리에 나타날 수 있다(2.2절). 또한 ‘가장’과 같은 정도부사가 대상논항 ‘로’구를 수식할 수 있으나, ‘에’ 구문의 대상논항은 수식을 받을 수 없다(2.3절). 끝으로, 대상논항이 ‘로’ 구문에서 의문사 ‘무엇’으로, ‘에’ 구문에서는 의문사 ‘누구’로 의문화됨을 보인다(2.4절). 두 구문의 대상논항이 위와 같은 뚜렷한 대조를 보임을 근거로, 두 구문의 상이한 기저구조(underlying structure)를 제시한다. 특히, ‘로’ 구문의 대상논항이 보이는 통사적 특성이 명사서술어(predicate nominal)의 그것과 일치함에 주목하여, ‘에’ 구문과는 달리, ‘로’ 구문의 소절(small clause) 분석을 제안한다(3장).

2. 대상논항의 통사적 특성들

2.1. 관계화

명사서술어(predicate nominal)는 외견상 명사구이지만 보통의 논항명사구와 통사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 중 하나는, 논항명사구는 관계화를 경험하는 반면, 명사서술어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Kuno 1970). 아래 이른바 소절(small clause; SC) 구문을 통해 이를 확인하자.

- (4) 가. 철수가 [sc 영이를 아내로] 삼았다
 나. [철수가 아내로 삼은] 영이
 다. *[철수가 영이를 삼은] 아내

표준적 분석에 따르면, (4가)에서, ‘영이를 아내로’는 소절을 형성한다(조은 1998, 임창국 1999). 즉, ‘아내’는 지시체(referent)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내라는 속성(property)을 나타내어, 소절 주어 ‘영이’의 서술어 기능을 담당한다. 통사 범주적으로 말하면, 이 둘은 모두 명사구로 이해된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소절 주어 명사구인 ‘영이’는, (4나)에서 보이듯, 관계화될 수 있지만, 명사서술어 ‘아내’

는, (4다)에서 관찰되듯, 관계화될 수 없다. 요컨대, 명사서술어는 관계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자.3)

아래 장소교체 ‘로’ 구문의 예에서 ‘해변’은 관계화가 가능하지만, ‘미인들’이 는 관계화를 거부한다.

(5) 가. 해변이 미인들로 봄빈다.

나. [미인들로 봄비는] 해변

다. *[해변이 봄비는] 미인들

관계화 여부에 있어 두 표현이 보이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는, 두 논항의 상이한 통사적 지위에서 비롯되었다고 가정하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위의 소절 경우와 같은 논리로, ‘해변’은 일반 논항명사구이기에 관계화가 가능한 반면, ‘미인들’은 명사서술어이기에 관계화되지 않는다.4)

반면에, 아래 ‘에’ 구문 (6)에서 관찰되듯, 장소논항 ‘해변’과 대상논항 ‘미인들’ 모두 관계화를 경험할 수 있다.

3) 관계화되지 않는 요소가 모두 명사서술어는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자. 아래 예에서,

(i) 가. 영이가 손이 크다. → *영이가 큰 손

나. 철수가 영이보다 크다. → *철수가 큰 영이

다. [철수가 Op_i [영이보다] 크다]

(i가)에서 ‘손’이 관계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강명윤 1996에 따르면, 최대투사 XP만이 관계화가 가능한데, ‘손’은 핵, 즉 N⁰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또한, (i나)에서 ‘영이’가 관계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표준적 분석에 따르면, (i다)에 간단히 제시되어 있듯, 비고 구문은 운용자(operator)가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관계화를 겪지 못하는 요소는 다양한 형태·통사적 이유에서 그러할 것으로 이해된다. 요컨대, 명사서술어는 관계화 여부에 대한 충분조건이다.

4) 의미의 한 논평자는, 남승호 2002:304를 인용하며, ‘로’ 구문에서의 대상논항이 관계화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원인’ 의미역(즉, 원인논항)이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i) 가. 나무가 태풍에 쓰러졌다. 나. *나무가 쓰러진 태풍

홍재성(1987:184) 역시 ‘로’구가 원인 의미해석으로 풀이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ii) 대합실은 막차를 기다리는 귀성객들로 (E+인해+해서+말미암아) 몹시도 봄볏다.

먼저, (i)과 관련하여, ‘태풍’이 원인 의미해석을 받으며, 그것이 관계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필자도 동의한다. 그러나 선행 각주에서 지적하였듯이, 관계화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장소교체 ‘로’구의 관계화 불가능 원인이 (i)에서의 원인 표현의 관계화 거부 이유와 동일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 본고에서 장소교체 동사의 대상논항이 관계화되지 않기에 명사서술어라고 주장하는 것은 관계화 불가능 증거 하나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증거들(분열문 초점자리 출현 여부, 정도부사의 수식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교집합적’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로’구가 원인논항이라는 주장을 위해서는 관계화불가능 증거 이외의 독립적인 증거가 요구된다.

(ii)와 관련하여, 만약 ‘로’ 구문의 대상논항이 원인논항이라면 아래 (iii)과 같이 원인 표현이 부가적으로, 중첩적으로 출현한 예문의 자연스러움을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iii) 열차지연으로 (인해+해서+말미암아) 대합실은 막차를 기다리는 귀성객들로 몹시 봄볏다.

- (6) 가. 해변에 미인들이 봄빈다.
 나. [미인들이 봄비는] 해변
 다. [해변에 봄비는] 미인들

(5)와 (6)에서 보이는 이러한 대조의 주목할 만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에’ 구문과 ‘로’ 구문이 서로 다른 구문이며, 따라서 ‘봄빈다’ 장소교체 동사가 상이한 통사구조를 갖는다는 본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2.2. 분열문

계속해서 제시될 증거는, 일반 논항명사구와는 달리, 명사서술어는 분열문(clefting sentence)의 초점자리에 출현할 수 없다는 Emonds(1984)의 관찰에 기반한다. 가령, 아래 예문에서 ‘미인’은 ‘영이’에 대한 명사서술어인데, 후자는, (7나)에서 확인되듯, 초점자리에 자연스럽게 출현할 수 있다. 반면에, (7다)에서는, ‘미인’이 분열문의 초점자리에 나타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 (7) 가. 철수가 [sc 영이를 미인으로] 생각한다.
 나. 철수가 미인으로 생각하는 것/사람은 영이다.
 다. *철수가 영이를 생각하는 것은 미인(으로)이다.

이렇듯 논항명사구와 명사서술어가 보이는 대조를 염두에 두고, 장소교체 구문으로 돌아가자. ‘로’ 구문 (8가)에서 ‘미인들’은 명사서술어이다. 이러한 분석이 옳다면, 분열문 초점자리와 관련하여 예측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해변’과는 달리, ‘미인들’은 분열문의 초점자리에 나타날 수 없다. 이러한 예측은 (8나, 다)에서처럼 실로 올바르게 판명된다.

- (8) ‘로’ 구문
 가. 해변이 미인들로 봄빈다.
 나. 미인들로 봄비는 {것은/곳은} 해변이다.
 다. *해변이 봄비는 {것은/사람들은} 미인들(로)이다.

그러나 ‘에’ 구문 (9가)의 경우, 장소논항과 대상논항이 일반 논항명사구이기에 분열문의 초점자리에 오는 것이 비문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된다. 아래에서 확인되듯, 과연 그러하다.

- (9) ‘에’ 구문
 가. 해변에 미인들이 봄빈다.
 나. 해변에 봄비는 {것은/사람들은} 미인들이다.
 다. 미인들이 봄비는 {것은/곳은} 해변이다.

앞 절의 관계화 불가능 증거와 함께, 본 절에서 확인한 분열문 초점자리 출현 불가능은 ‘로’ 구문의 대상논항이 명사서술어라 이해될 때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또한 ‘에’ 구문에서 장소와 대상 두 논항이 모두 분열문의 초점자리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은 이 둘이 모두 ‘븨비다’ 동사의 일반 논항명사구를 형성함을 의미한다.⁵⁾

2.3. 정도부사의 수식

일반으로,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혹은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 달리 말해, 부사는 명사를 수식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가장’ 따위의 정도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어 주목된다. 아래 예를 보자.

- (10) 가. 철수가 이 마을에서 가장 미남이다.
 나. *철수가 가장 미남을 죽였다.
 다. *철수가 가장 학생이다.

(10가)에서 정도부사는 ‘미남’을 수식하고 있다. 반면, (10나)에서는 동일한 정도부사가 ‘미남’을 수식하지 못한다. 이러한 대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서 잘 설명된다. 명사 ‘미남’이 (10가)에서는 명사서술어인 반면, (10나)에서는 논항명사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사적 조건이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임창국(1999)은 주장한다. (10다)를 보면, 정도부사가 명사서술어를 수식하는데 있어 의미적 조건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송철의 1992, 황화상 1996). 즉, (10가, 다)에서 ‘미남, 학생’은 모두 명사서술어이지만, 전자는 정도성(gradable) 명사인 반면, 후자는 비정도성 명사이다. 요컨대, 정도부사 ‘가장’의 명사수식 조건은, 통사적으로는 명사서술어이어야 하며, 의미적으로는 [+gradable] 의미자질을 갖는 정도성 명사이어야 한다(임창국 1999:18ff).⁶⁾

5) 의미의 한 논평자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 (i) 해변이 붐비는 {것은/이유는} 미인들 때문이다.

이러한 문장은 본고가 의도하는 분열문 구문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대응되는 비분열문 문장(‘로’ 구문)에는 ‘때문’과 같은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변이 미인들 때문에 붐빈다’ 대 ‘해변이 미인들로 붐빈다’.

6) 의미의 한 논평자는 (i)과 같은 문장이 수용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 (i) 가. 철수는 아주 미남하고 결혼했다. (문법성 판단은 논평자의 것임)
 나. 형희는 그 마을에서 아주 효자한테 시집갔다. (문법성 판단은 논평자의 것임)
- (ii) 가. *갑들이가 갑순이보다 더 부자를 살해했다.
 나. *나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제일 미인이 좋다.
 다. *갑순이가 우리 마을에서 가장/제일 미남과 결혼한다더라.

임창국(1999:19ff)은 한국어학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nlinguistics.or.kr)를 통해 모어화자들의 직관을 조사한 것을 인용하며, (ii)의 문장들이 비문법적이라 보고하고 있다. 문법성 판단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음 예를 보자.

(11) 철수가 [영이를 (이 마을에서) 가장 미인으로] 생각한다

정도부사 ‘가장’이 명사 ‘미인’을 제대로 수식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첫째, ‘영이를 미인으로’는 소절을 형성하며, ‘미인’은 명사서술어이기 때문이다. 둘째, ‘미인’은 정도성 의미자질 [+gradable]을 갖는 정도성 명사이기 때문이다.

이제 장소교체 두 구문에 이를 적용해 보자.

(12) ‘로’ 구문

해변이 가장 미인들로 봄빈다.

(13) ‘에’ 구문

^{??}*해변에 가장 미인들이 봄빈다.

‘로’ 구문 (12)에서, 정도성 의미자질 [+gradable]을 갖는 ‘미인들’은 명사서술어이다. 이러하기에, 정도부사 ‘가장’의 수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에’ 구문인 (13)에서는, ‘미인’이 정도성 명사이기는 하나, 논항명사구이기에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2.4. 의문사 ‘무엇’

끝으로 살펴볼 내용은 의문사 ‘무엇’과 ‘누구’의 의미·통사적 제약과 관련된다. 진리조건 의미론(truth-conditional semantics)에서, 술어는 속성(property)을 나타내고, 논항은 개체(entity)를 나타낸다. 가령, [+human] 의미자질을 갖는 ‘총각, 미인’ 따위의 명사가 개체일 경우에는 의문사 ‘누구’를 사용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human] 자질을 갖는 유정명사가 속성을 나타낼 때는, 즉 (명사)서술어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의문사 ‘무엇’을 사용한다. 아래 예문 (14)와 (15)는 이를 예시한다(영어의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는 Kuno 1970을 참조할 것).

(14) 가. 철수가 영이를 만났다.

나. 누구를/*무엇을 만났다고?

(15) 가. 철수가 총각이래.

나. 철수가 뭐라고/무엇이라고/*누구라고?

이를 염두에 두고, 다음의 장소교체 구문을 보자.

(16) ‘로’ 구문

- 가. 해변이 미인들로 붐빈대.
 나. 해변이 무엇으로 붐빈다고?
 다. *해변이 누구누구로 붐빈다고?

(17) ‘에’ 구문

- 가. 해변에 미인들이 붐빈대.
 나. *해변에 무엇이 붐빈다고?
 다. 해변에 누구누구가 붐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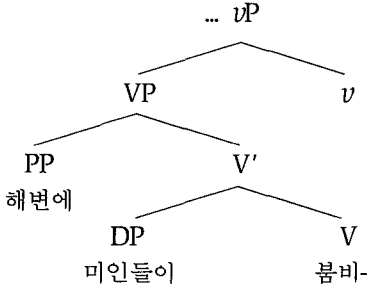
‘로’ 구문인 (16)에서, ‘미인들’은 [+human] 의미자질을 갖으며, 미인의 속성을 지시(refer)하는 명사서술어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미인들로’는 의문문에서 의문사 ‘무엇’이 대신하고 있으며, 의문사 ‘누구’가 대신한 경우는 비문이다. 반면에, ‘에’ 구문에서는, ‘미인들’은 미인들 개체를 지시하는 논항명사구이다. 그러므로 [+human] 명사 ‘미인’은 의문문에서 의문사 ‘누구’가 대신하여야 하며 의문사 ‘무엇’이 대신한 (17나)는 비문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에’ 구문과 ‘로’ 구문의 통사적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대상논항이 두 구문에서 상이한 통사적 행동을 보였는데, ‘에’ 구문에서는 일반 논항명사구처럼, ‘로’ 구문에서는 명사서술어처럼 기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로’ 구문의 대상논항은, ‘에’ 구문의 그것과는 달리, 관계화되지 않으며, 분열문의 초점자리에 출현하지 못하며,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의문사 ‘무엇’으로 의문문화된다. 이러한 뚜렷한 대조는 두 구문에 서로 상이한 통사구조를 설정할 때 잘 설명된다. 즉 두 구문의 서로 다른 통사구조는 이동변형의 통사적 기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소교체 동사가 두 개의 상이한 논항구조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잘 설명된다. 그도 그럴 것이, 이동과 같은 통사적 변형은 위에서 관찰된 다양한 대조를 초래하는 기제가 결코 아니다. 다음 절에서는 두 구문의 통사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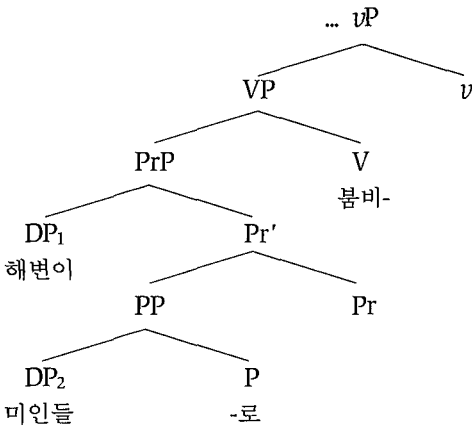
3. 제안: ‘로’ 구문은 소절구조

앞 절에서 관찰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장소교체 ‘붐빈다’류 자동사의 ‘에’ 구문의 통사구조는 (18가)처럼, ‘로’ 구문의 통사구조는 (18나)처럼 제시한다.

(18) 가. ‘에’ 구문의 통사구조



나. ‘로’ 구문의 통사구조



주목할 점은, ‘에’ 구문 (18가)에서는 장소논항과 대상논항이 ‘봄비다’류 동사의 내재논항(internal argument)이다.7) 무엇보다, 제안된 구조 (18나)에서 주목할 점은 DP1과 [pp DP2-P]가 하나의 소절(small clause)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해변이’와 ‘미인들로’는 소절을 형성하여, 전자는 주어로, 후자는 술어로 해석된다.

여기서 잠시 소절과 그 통사구조에 대해 생각해 보자. 논의를 다음과 같은 가정에서 출발해 보자. 주술관계는 통사적으로 반드시 Bowers(1993)의 서술구(PrP; Predication Phrase)와 같은 절구조(clausal structure)로 표상(representation)되어야 한다고 가정하자. 나아가, 장소논항 DP1과 대상논항 [pp DP2-P]가 형성하는 소절의 의미가 [DP1 HAVE DP2]라 가정하자.8) ‘해변이 미인들로’는 [해변

7) 이러한 구조는 장소교체 동사가 비대격동사임을 의미한다(양정석 1995, 임창국 1997). Legate(2003)에 따라, 비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경동사 v가 설정되어 있다.

8) Lee(1998)도 장소교체 타동사의 의미형태(Semantic Form) 설정에 있어 대상논항과 장소논항과의 의미관계를 ‘HAVE-ON’라는 의미술어를 설정하여 소유로 분석한다(Paek 2000에서 재인용).

HAVE 미인들], 즉 ‘해변이 미인들을 가지다’라는 의미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가정에 따라, 이러한 의미적 소절관계는 통사적으로도 절(clause)로 표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소논항 DP₁과 대상논항 [PP DP₂-P]가 형성하는 소절은 서술구 PrP로 표상된다. 제안된 구조 (18나)에서 주목할 점은 [대상논항-로]가 일종의 명사서술어(predicate nominal)라는 점이다.9),10)

‘로’ 구문이 갖는 소절은 여타의 소절과는 의미해석에 있어 일견 이질적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기왕의 소절들은 아래 예들이 보여주듯이 [X가 Y이다]라는 계사적(copular) 또는 서술적(predicational) 의미해석을 가지는 반면,

- (19) 가. 철수가 [PrP 영이를 아내로] 삼았다
 나. 철수가 [PrP 영이를 바보로] 생각한다

‘로’ 구문의 소절은 소유/존재(possession/existence)의 의미 해석을 갖는다. 이는 일견 본고의 소절분석의 타당성을 약화시키는 듯하다.

‘로’ 구문의 소절의 소유/존재 의미해석에 대해서, 소절 PrP의 의미해석은 모 문동사와의 공모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자(Yim 2004). (19)의 경우, 소절이 서술 의미해석을 갖는데, 이는 ‘삼다’ 따위의 소위 소절 동사와 PrP가 서로 공모하여 얻어진다. 반면에 ‘뵈미다’ 따위의 장소교체 동사는 PrP와 공모하여 소유/존재 해석을 받게 된다고 가정하자.11)

- (1) 가. 영이가 벽을 신문지로 붙였다
 나. [CAUSE (Yongi, [HAVE-ON (wall, newspaper)])]

9) 본고는 장소교체 자동사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익명의 한 논평자는 다음과 같은 장소교체 타동 구문 역시 동일한 선상에서 분석할 것인지, 나아가 (i)와 같이 ‘로’가 출현하는 구문에 본고의 분석이 확대적용될 수 있는지 묻는다. 설부론 판단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본고의 장소교체 자동사 구분분석이 타동사 구분분석에도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물론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돌리기로 한다. 또한 (i)와 같이 ‘로’가 출현하는 구문에 대하여는, 유동석(1984)의 분석에 따라 ‘로’의 통합적 분석 가능성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는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남은 과제로 돌린다. (아래 각주 10 참조.)

- (i) 가. 철수가 페인트를 벽에 칠했다. 나. 철수가 페인트로 벽을 칠했다.
 다. 철수가 학교-에/로/를 갔다.

10) 임창국 1999와 Yim 2004는 한국어의 ‘로’가 서술성 표지(predicational marker; Pr⁰)라고 주장한다. ‘로’는 다양한 소절구문의 명사서술어에 후행한다.

- (i) 가. 철수가 영이를 아내로 삼았다. <소절>
 나. 철수가 라면을 야캉으로 먹었다. <묘사 이차술어(deictive secondary predication)>
 다. 철수가 특급투수로 떠올랐다. <결과(resultative) 이차술어>

그에 따르면, 한국어의 서술성표지는 ‘이(다), 게, 로’이며, 이들은 각각의 형태·통사적 역할을 분업화하고 있다. 먼저, ‘이’는 시제절(tensed clause)에, ‘게, 로’는 비시제(nonfinite) 소절에 나타난다. 나아가, ‘게’는 선행 요소가 동사, 형용사와 같은 용언류일 때, ‘로’는 명사류일 때 선택되는 서술성 표지이다(구체적인 분석은 Yim 2004 참조).

11) 소절이 보이는 의미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입장은 강명운 1995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소절 속의 주부와 술부 관계는 서술관계(predication), 동치관계(identification), 소유관계(possession)로 확대해석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리하여, ‘코끼리가 코가 길다’와 같은 비분리소유(inalienable

논의의 초점을 바꾸어, 장소교체 구문에 대한 본고의 어휘적 접근 분석이 가지는 장점에 대해 보자. 홍재성(1987)은 ‘븨비다’류 동사의 ‘에’ 구문과 ‘로’ 구문이 보이는 이른바 ‘전체/부분 관여’라는 의미해석 차이를 관찰한다.

(20) 가. 오늘도 밤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인다.

나. *오늘도 밤하늘이 별 하나로 반짝인다. (홍재성 1987:182-3)

‘로’ 구문 (20나)가 어색한 이유는, 장소논항 ‘밤하늘’이 밤하늘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별 하나가 밤하늘 전체를 반짝인다는 것은 어색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에’ 구문 (20가)에서는, 장소논항 ‘밤하늘’이 밤하늘의 일부분으로 해석되어, 별 하나가 밤하늘 일부분을 반짝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의미 해석상의 차이가 통사적 이동변형 접근에서 설명될 수 있을까? 동일한 기저구조를 설정하여 이동변형으로 두 개의 “격교체” 구문을 도출하는 통사적 이동변형 분석에서는 전체/부분 관여 의미해석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이동변형은 문장의미를 (적어도 위와 같은 양상으로는) 바꾸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능동구문과 수동구문을 동일한 기저구조로 설정한 후에 이동변형으로 포착하려 했던 70년대의 변형생성이론이 그러한 입장을 포기하고, 능동, 수동 구문 각각에 상이한 기저구조를 할당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동변형이 의미를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는 가정에서였다.

4. 결 론

지금까지 본고는 한국어 장소교체 구문이 보이는 두 가지 “격교체” 구문, 즉 ‘에’ 구문과 ‘로’ 구문에 대해 어휘적 접근법을 통한 분석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구문은 동일한 하나의 기저구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븨비다’류 술어가 두 개의 상이한 논항구조, 즉 하위범주화 자질을 가져 그 각각이 상이한 두 개의 기저구조를 생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에’ 구문에 나타나는 동사는 장소와 대상 논항을 내재논항으로 갖는 2항 비대격(dyadic unaccusative) 동사로 분석하였으며(임창국 1997), ‘로’ 구문의 동사는 소유 의미해석의 소절 PrP를 단일 보충어로 취하는 비대격동사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구문적 차이는 대상논항이 두 구문에서 보이는 상이한 통사적 특성의 뚜렷한 대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possession) 관계를 나타내는 이중주격 구문에서, ‘코끼리가 코가’ 부분이 소유관계 소절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 강명윤. (1995). 주격 보어에 관한 소고. *생성문법연구* 5. 한국생성문법학회.
- 강명윤. (1996). 이중주격어 구문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 *한국어학* 4. 한국어학회.
- 고광주. (2003). 국어의 격교체 구문 연구. *한국어학* 18. 한국어학회.
- 김선웅. (1995). 한국어 주격 목적어 연구. *언어* 21. 한국언어학회.
- 남승호. (2002). 처소 논항 교체의 의미론: 자동사와 형용사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38.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송철의. (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서울: 태학사.
- 양정석. (1995). 국어 동사의 의미 분석과 연결이론. 서울: 박이정
- 연재훈. (1998). 장소 보어 교체 구문의 자동사문과 타동사문. *언어* 23. 한국언어학회.
- 유동석. (1984). {로}의 이질성 극복을 위하여. *국어학* 13. 국어학회.
- 임창국. (1997). 국어의 2항 비대격 동사. *고려대학교 미발표 원고*.
- 임창국. (1999). 한국어 이차 술어 구문: '로'의 계사적 양상.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임창국. (2006). 한국어 이차술어 구문의 통사. *언어* 31. 한국언어학회.
- 조 은. (1998). '제한 소절'의 논항구조. 국어 문법의 탐구 IV 서울: 태학사.
- 홍재성. (1987). 교차 장소보어구문에 대하여.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의 연구*. 서울: 탑출판사.
- 황화상. (1996). 국어 체언 서술어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Bowers, J. (1993). The syntax of predication. *Linguistic Inquiry* 24, 591-656.
- Emonds, J. (1984). The prepositional copula *as*. *Linguistic Analysis* 13, 127-144.
- Grimshaw, J. (1990).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ass.: MIT Press.
- Kuno, S. (1970). Some properties of non-referential noun phrases. In Roman Jakobson & Shigeo Kawamoto, eds., *Studies in General and Oriental Linguistics: Presented to Shirô Hattori on the Occasion of His Sixties Birthday* (pp. 348-373). Tokyo: TEC Co., Ltd.
- Lee, H. (1998). On the semantic and conceptual basis of locative alternation. Ms., Stanford University.
- Levin, B. (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vin, B. & M. Rappaport Hovav. (1995). *Unaccusativity: at the syntactic-lexical semantics interface*. Cambridge, Mass.: MIT Press.
- Legate, J. (2003). Some interface properties of the phase. *Linguistic*

Inquiry 34, 506-516.

- Paek, E-K. (2000). *The argument structure of locative verbs in Korean in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Ottawa, Ottawa, Canada.
- Salkoff, M. (1983). Bees are swarming in the garden. *Language* 59, 288-346.
- Yim, C. (2004). *The EPP and nominal/predicational PPs in English and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Ithaca, New York.

임창국

631-701

경남 마산시 월영동 449

경남대학교 영어학부

전자우편: yesaiem@kyungnam.ac.kr

접수일자 : 2006. 3. 31

수정본 접수 : 2006. 5. 15

게재결정 : 2006. 5. 31